

福音新聞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連絡事務所・京都市右京区
西院矢掛町20 京都教会内
電話(075)311-5051
電 行 人・李 仁 夏
編 集 人・洪 東 根
印 刷 所・儒 文 社
電 話 (06) 716-5046
定 価 2 0 円

월모아博士 在日韓國人問題力說

서세미나 하우스, 도오시샤대
카나다長老教綵
니콜스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임
직원회가 지난 4월 11일
한국기독교회관(KCC)서
개최되었다.

在日韓国人教会視察

유석준, 이인하	이날 회의는 총회신앙	출하고	종교법인규칙	수정
득삼 홍윤근, 오윤태, 최창화	고백신조 개정위원으로 김	위원으로	정인수, 최경식	
유석준, 이인하	세서를 선	유석준, 이인하	세서를 선	출
유석준, 백의유치원	후원문			

総会長 金 得 三

금년도 부활절을 마치
했다. 기독교는 부활로써
시작된 생명의 종교이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전
인의 특색인 호의(의심)
다. 주의 부활의 증인인
있던 「도마」라는 제자
가 있다. 도마는 현대
의 증인인



예수의 부활과 현대인

요한 20장 19-31

이 때 십자가에 달려서
 아가시었지만 진실로 승
 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다. 이 세상에는 죄악
 죽음, 허무가 우리 인간
 을 위협하고 있어서 우
 리 인간을 무의미한 존
 재로 만들고 있다. 그러
 나 부활하신 주는 그것
 들을 완전히 정복하시며
 승리자로서 우리 인간에
 게 희망을 주시고 계신
 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인의 의미에서 그는 현대
 인의 대표자라 할 수 있
 다. 불란서의 대표자라 한
 「데갈트」는 「나, 생각함.
 로 나 있다」고 말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을 회
 의(의신)라는 말로 바
 꾸수가 있다면 여기서
 「왜」로서 시작되는 과

다. 도마의 생의 방향은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을 자기 눈으로 보고 화인할 후에 남듯 하고 산다는 입장이자. 이런 주의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에 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인가, 우리의 과거와 의 명예, 자랑, 주장을 하는 안했 가. 복음을 위 한 영군, 봉사자라는 것 은 명목뿐이고 무슨 일인가. 진심과 본심으로 했 던가. 육의 욕심을 채우 기 위하여 결사적인 욕을 없이 바쁘다, 분주하 기도 없이 이유로 너무나 바쁘다, 분주하 다는 이유로 너무나 바쁘다, 분주하

었다. 주님은 29절에서 보
이는 한도에서만 믿으려
고 하는자를 책망하고 계
신다. 그리고 「믿는」 자
만이 참으로 「본다」.
또한 믿는자만이 볼수 있
는 현실이 「부활」 이라는
것을 (요한 11장 40, 9 장
38 ~ 39) 가르치고 있다.
회의 (자기중심적) 의 도
마는 마지막에 「나의주,
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주인이 될수
없다. 부활
의 주예수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이
되시며 우리를
승리와 회
망의 길로 인도
하시는것
이다. (고전 15
장 20 ~ 22,
55, 요한 16
장 33, 요 15
장 4 ~ 5)

復活節音樂禮拜

해에서 강연을 했는데 오시샤대학에서는 「20세기의 예언자 마틴·루터킹」 「흑인신학과 교회신교」란 제목의 강연을 했다. 그는 지난 9년간 교회와인종문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국안의 흑인의 인종문제 해방을 위해 투쟁해 왔고 흑인신학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마틴·루터킹 목사의 전문가이며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사회윤리를 강의해 왔다. 금년 9월부터 보스턴대학에서 사회윤리학 교수로 부임한다.

京 都・北部教会共同으로
 復活節音樂禮拜
 부활절 음악예배가 4월 2일과 9일에 7시 경도교회와 북부교회 공동으로 거행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경도교회성가대와 북부교회성가대의공동추주로 거행된 음악예배의 지휘는 하병철씨였고 반주는 김필문씨였다.

李仁夏總務渡米

인종문제會議 參席
재일대한국도교총회 총
무 이인하목사는 미국 뉴
욕에서 열리는 WCC 인종
문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미국으로
떠났다.

出入国法案 反対

한국기독교교회관(KCC) 사회硏究會
사 회문 제 연 구 회 는 지 난 4 월 14 일 오후 7 시 회 의를 갖고 출 입국 법 안을 검토한 후 반 대성 명 서를 작 성 하 고 각 교 회 에 반 대 우 동 을 요 망 하는 공 문 을 발 송 토 록 하 였 다.

都市問題研究会

5月末、東山莊에서
일본NCC(키리스트教協
議會)는 오는 5월말부터
6월 3일까지 東山莊에서

재일대한국교회총회에서는
황의생, 최충식, 최경식, 김
현식 KCC스탭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기도 하고 산천의 초목은 새 새 싹을 움터는 계절이다. 인간세계에 있어서도 봄은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는 시절인 것이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방안 가득 갈아넣고 공기를 가볍게 걸쳐입고 있던 옷을 입는다. 쭉그리고 있던 가슴을 펴는 계절이다. ▼이 봄과 더불어 부활의 새아침을 맞는 다. 기독교의 진수는 이 부활을 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씩 맞는 부활절을 한가로운 식이나 관습으로 그치고 마는 교회가 허다하고 교인이 많이 많다. 부활이 의 생명이라면 기독교는 생동하고 창조하고 발전하고 전진해 나가고 있어야 한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정지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풍기는 법이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오늘 이 시점에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니 정지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풍기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에 부활의 의의는 있다. 낡은 것에서, 죽은 것에서, 정지하고 썩고 뉘그러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약동하는 이 생명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때 우리 인류의 소원인 평화와 정의가 구현된다.

復活節メッセージ

イエスの復活と現代人

総会長 金得三

わたしたちは今年も復活節を迎えようとしています。復活節において、私たちの真の復活信仰は、何となく告げられる福音は、何となく「主の勝利です。あは、信じない」という立場の人々には、十字架につけられて死なれた主が、実に勝利者であるという事です。この世には、罪や死や虚無が、私たち人間をおびやかしています。また、それが私たちを無意味な存在にしています。しかし、それらのものの上には、すでにイエスの足がのせられ、イエスがその上に勝利者として立っていられたという事です。イエスの復活の証人であった弟子の一人「トマス」は、何にでもうたいたいをもつ、そして自分でたしかめて見ないと気がすまないという人でした。彼は現代人の特色である懐疑をもった人です。その意味で、彼は代表的な現代人でした。フランスの哲学者「デカルト」は「我、おもひゆえに、我、あらぬところからはできない」といっています。「うたがう」という精神から「科学する」心が生まれました。今日の科学、発見、科学や技術も、この「うたがう」という精神から生まれてきたことなのです。この「トマス」において代表されているのは、合理的な経験主義、実証主義、懐疑主義ともいえるべき生活のイエスを、あまりにも

随筆

金得三

金在述

人間性、この見る立場でとらえようとした。たしかに「見る」ことなくして人間は「信じ」ない。それ故に、事実イエスは、人間の目に「見える存在」として復活したのである。しかし、復活のイエスの現実には、人間の目に見えない部分があります。復活のイエスは、トマスに代表される「見る限りで信ずる」だけの立場をくずされました(二九節)「信ずる」ものこそ、真に「見る」のである。信ずるものだけに見える「現実」が復活であることを(一一・四〇、九・三八・三九)で教えておられます。復活のイエスは、トマスの中にこの信仰を創造されました。それゆえにトマスは「わが主よ、わが神よ」(二八)と告白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す。イエスの復活は、このように、人間の「わが方」、その生き方を「転換」せしめる出来事であるのです。復活の信仰は「私」中心ではない。私が「主」ではない。私が「主」である時は、私は人生の主ではなく、イエスの復活によって死はもはや私たちの「主」ではない。復活のイエスこそわれらの「主」であり、「神」であり、われらを勝利に、導き望みに、導かれる方なのであります。

地方会聯合礼拝

ニ콜ンバサ内方教会
5月2日 大阪教会

再興大韓 기독교총회 관
서지방회 임직원회가 지난 4월 11일 한국기독교총회관에서 모여 캐나다장로교회 총회장 니콜슨박사의 내방을 맞아 5월 3일 大阪 聖公会에서 지방회 연합으로 예배를 거행하도록 결정했다. 캐나다 장로교회 해 외선교부장 말코름목사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K 29일에 仁川로 정했다.

YMCA定期總會

任員全員留任

지난 4월 15일 재일본 한국기독교총회(YMCA) 정기총회가 동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어 임원개선에서 이사장에 유석준, 부이사장에 김광수, 서기 오경세, 회계 이동화씨를 선출, 유임시켰다. 그리고 71년도 사업결

도교회는 지난 4월 9일 부활절 예배후 제직회를 열고 해방후 22년간 동교 회에 시무한 전임목사를 명예목사로 추대했다. 故裴牧師藏書寄贈 鄭女史通해 KCC에

지난 3월 22일 고배

生徒募集

28年の歴史と伝統を誇る韓国語学校 韓国からきた教師陣により最も正確な韓国語が学べる学校 国籍、性別、年齢、學歷を問わず学べる学校

初級班・中級班・高級班

- 一、授業科目 韓国語、音楽、歴史
- 一、授業日 週四日間(月・火・木・金)
- 一、授業時間 午後7時~9時30分
- 一、授業期間 四ヶ月間(4月~7月) (9月~12月)
- 一、授業料 入学金5千円 授業料8千円(4ヶ月分) 4月10日午後7時
- 一、始業式

京都府公認 京都信明学校

京都市右京区西院春日通四条下ル 電話(〇七五)三二一六三八一 (〇七五)三二一五〇五一